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이슈리뷰

- **부활의 미학 - 한강 소설이 폭력을 거부하는 법**
박혜진 | 문학평론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차인순 |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부활의 미학 - 한강 소설이 폭력을 거부하는 법

박혜진 문학평론가

1. 고통받는 인간

역사라는 긴 시간 위에 자신의 족적을 남긴 작가들은 예외 없이 인간 탐구자들이었다. 당장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 지식을 발견한 것도 아니지만, 위대한 작가는 인류의 영속과 발전에 깊이 참여함으로써 역사와 함께한다. 그들은 인간의 어둠을 발견하고 인간의 빛을 발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묻고 다르게 대답한다. 알베르 카뮈는 인간 이성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근대적 인간에 대한 믿음을 깬다고 가즈오 이시구로는 인간이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기만의 존재임을 드러냈다.

스웨덴 아카데미(Svenska Akademi)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호명했다. 한강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위크(Nobel week)’로 한창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작은 흥분을 동반한다. 1901년부터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노벨 위크 기간에는 문학, 생리학, 물리, 화학, 경제 등 5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강연이나 기자회견을 하고 시상 및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그중에서도 시상에서 작가가 연설할 내용에 전 세계 ‘문학 애호가’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은 향후 출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상자의 대답은 인고에 회자되며 전설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설의 시작을 목격하려는 마음이 차분하기를 기대할 순 없을 것이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문장으로 수락 연설을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폭우를 피해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던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하루는 날씨에서 비롯된 곤란했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고통, 인간과 희망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이 시작했던 날이기에 작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다. 비를 피하고 있던 여덟 살의 한강은 길 건너편에 모여 있는 다른 아이들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신기한 듯 감동스럽게 바라봤다고 한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게서 작가는 고통과 인간에 대한 섭리를 이해해 버렸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걷고 있는 그저 '다른 인간'이지만, 비가 내리고 우산이 없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같은 인간'이 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로 연결해 주는 것은 세상의 비, 세상의 슬픔, 한마디로 고통이다. 이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밝힌 문학의 정의를 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하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연결된다. 그리고 문학은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실이다.

한강의 문학은 1인칭 고통과 3인칭 고통으로 양분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2인칭 고통이라는 공감의 시점(時點)을 제공한다. 1인칭 고통은 개인 고유의 체험이다.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은 자칫 우리를 고립시킨다. 3인칭 고통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고통이다. 그 사람이 되어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이에는 엄연한 단절이 있다. 그러나 단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강의 작품이 오랜 시간 천착하고 있는 테마 역시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 사이에 단절만이 아니라 연결도 있다는 진리이다. 연결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유한 고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강 소설의 주인공들은 주로 상처받기 쉬운(vulnerability) 사람들이다. 상처받기 쉽다는 건 인간적으로 명백한 취약성이다. 그러나 동시에 명백한 강점일 수도 있다. 타인에게 공감함으로써 타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의 문학에서 '인간'은 고통받는 인간(homo patiens)이다. 한강 소설의 2인칭 고통은 주체적으로 상처받는 태도의 미학적, 윤리적 가치를 호소력 있게 그린다. 3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을 훑아보려 한다.

2.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

한강의 소설에서 반복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다.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다가가 보자. 먼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작품으로 「내 여자의 열매」를 살펴보자.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맨부커 인터내셔널 수상작이자 한강의 이름을 국제 무대에 알린 작품이기도 한 『채식주의자』일 테지만, 3편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책의 시작인 작품이 바로 「내 여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강 소설을 읽을 때 독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여자들,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적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내 여자의 열매」이기도 하다.

「내 여자의 열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내이고, 소설은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목소리로 진행된다. 아내는 자유로운 삶 대신 결혼을 선택한 여성으로, 서울 번두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그러나 생활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부부는 빠른 시간 안에 서로를 욕망하지 않는 단조롭고 건조한 관계에 접어든다. 와중에 아내는 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는 듯하다. 어느 날인가는 남편이 아내의 몸에서 멍든 자국을 발견하고 놀라지만 정작 아내는 자신의 상처에 무심

하기만 하다. 심인성 질병을 앓던 아내가 변하는 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다. 남편의 눈에, 베란다 쇠창살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만세 부르듯 치켜올리고 있는 아내가 보인다. 아내의 몸은 진 초록색을 띠고 있다. 푸르스름하던 얼굴은 상록활엽수의 잎처럼 반들반들하고 시래기 같던 머리카락에는 싱그러운 들풀 줄기의 윤기가 흐른다. 식물이 된 아내를 본 남편은 그 아름다움에 탄복한다. 정성껏 물을 주며 아내를 돌보려 한다. 죽을 것 같던 아내에게서 열매마저 맺힐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설의 메시지는 한강 소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엔진, 즉 ‘폭력에의 거부’일 것이다. 아내의 질환은 결혼으로 대표되는 ‘제도’가 부여하는 역할이 그들의 실존을 에워싸는 환경 속에서 깊어진다. 그들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듯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그럴듯한 것들 속에서 생명은 점차 병들고 죽어 간다. 이 소설의 플롯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며, 인물들이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죽음 이후의 존재로 부활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역사적, 사회적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원초적 아름다움이거나 초월적 아름다움에 더 가깝다. 원초적이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은 거부‘하는’ 수동성이 아니라 식물이 ‘되는데’ 능동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이 소설의 숨은 메시지다. 인간의 의지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창백하고 폭력적인 주체성을 폭력의 다른 이름으로, 주변의 환경과 함께 변화해 가는 생도감 있는 객체성을 그 반대의 이름으로 규정했다.

이콘(Icon)은 성경이나 교리의 내용을 내용을 소재로 그린 성화를 말한다. 요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현상 등으로 대상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기호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 아이콘

(Icon)이 성화를 뜻하는 ‘이콘’에서 왔으며, 둘의 어원은 모두 ‘형상, 모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eikoon’에서 왔다. 이 소설은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에서 죽음을 읽어 내고 인간의 객체성과 수동성에서 생명을 읽어 냄으로써 폭력에 대한 거부, 육식성의 문화에 저항하는 식물성의 문화에 대한 이콘이 되었다.

3. 흰 불꽃 : 능동적 기다림

2012년 발간된 소설집 『노랑무늬영원』에 수록된 단편소설 「파란 돌」은 세계 내 존재로서 폭력의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윤리성과 그의 미학적 교차점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서른일곱 살이 된 ‘나’는 20여 년 전 서른일곱 살이었던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 1년 전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신변을 정리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던 터였다. 흔히 죽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보인다는 특징대로 ‘나’도 죽기를 결심한 날 아침, 옛 친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돌렸더랬다. 십여 년 전부터 연도 별로 보관하고 있던 수첩들을 모두 꺼내 책상에 쌓아놓고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초등학교 동창부터 예전의 이웃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람부터 미진하게 할 말이 남아 있는 사람까지. 전화번호가 바뀌어 통화가 안 되면 알 만한 곳에 수소문하기에 이르는 ‘나’의 이런 행동은 죽고 싶은 사람의 그것이라기엔 너무 적극적이어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의 광기가 배어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할 정도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통화하며 약속 잡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후 이사를 온 뒤 자신의 “몸에서 죽어 있던 뭔가가 꿈틀거리고, 심장이 다시 살아나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집이 떠오른 것이다.

열일곱 살 무렵 친구 집에서 외삼촌이라 소개받은 그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한지로 된 바탕을 먹이 수놓는 방식의 작업들에 ‘나’는 흠뻑 빠져들었다. 닥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에는 모세혈관들 같은 무수한 섬유질의 길들이 있고, 그는 그 길들을 따라 퍼져 나가는 먹의 모양을 잡아 주며 작업을 했다. 이걸 다 직접 한 거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면서. “물이 그린 거지. 난 잘 흘러가게 터주고 막아주고 한 것밖에 없어. 식물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나 정작 ‘나’는 그의 작품에서 “불길처럼 하얗게 타오르는” 에너지를 느낀다. ‘나’의 눈에 그것은 “일 밀리미터 두께도 안 되는 하지만 마치 끝없는 깊이를 가진 듯 물과 먹이 흐르는 공간이 된다”. ‘나’는 신비로움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 그림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의 작업이란 “바닥의 담요 위에 펼쳐진, 겹겹 먹의 입힌 이합 한지를 내려다보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워낙 물길의 변저 가는 속도가 느려, 날씨가 습할 때면 일주일 만에 봐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먹이 말라 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원용 스프레이를 뿌려 주며 종이 죽 덩어리를 붙여 모양을 만드는 모습에서 능동적인 기다림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의 그림 작업처럼 그도 역시 낮고 약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무언가에 부딪치지 않아도 살갗에 푸르스름한 멍이 들었고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뒤통수에 피가 고여 있지만 피를 뽑아내는 시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 위출혈은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늘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던 그는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수영이나 자동차 운전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 사람 역시 몸에 밴 조심스러움으로 대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느

꼈던 가장 강력한 끌림이 이토록 취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무엇보다 처음 봤을 때 ‘남자처럼’도 보이지 않았던 그였다는 사실이 왜 지금에서야 떠오르는 걸까. ‘나’의 삶이 모종의 죽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7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폭력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자신을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멈칫하는 순간 떠오른 것은 그의 삶의 태도가 자신을 살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흰 종이 위에 먹의 길을 내었던 그의 작품을 경유해 ‘나’는 “조금씩 무엇인가 몸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계절 한 계절의 시간들이 차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낀다. 먹이 흐르면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리는 행위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기다림이 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힘’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있고 지냈던 당신과 ‘나’를 연결시켜 주었으며, 그의 작품이 품고 있던 흰 불꽃의 힘을 ‘나’의 손에 쥐여 주었다.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은 물길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긴 시간과 어떤 변화도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순간마저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사이 강함과 폭력에 훼손되지 않은 채 나약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능동적인 기다림이자 흰 불꽃의 의미다. 시간을 통과하면 나약함은 또 다른 나약함과 연결되어 찢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종이가 될 수 있다.

4. 홀로바이온트라는 인간의 단위

연결을 인간 실존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듯한 한강의 소설은 인간의 단위가 개인이라는 데에 반대하

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가장 최근작이라 할 수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항쟁의 희생자 가족인 ‘인선’과 인선의 가족을 할퀴고 지나간 가혹한 역사에 대해 알게 되는 그의 친구 경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광주 학살에 대한 소설을 쓴 후 심리적 고통에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경하에게 인선이 연락해 오며 서사가 작동한다. 오랜만에 연락해 온 인선은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를 전해 준다. 제주도로 거처를 옮긴 인선이 혼자 통나무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사고에 대한 얘기와 함께, 제주도에 혼자 남겨진 앵무새를 돌봐 달라는 부탁도 해 오는 인선. 무기력에 빠진 채 유서 쓰기만을 반복하고 있던 경하는 더 망설이지 않고 제주도로 간다. 그곳에서 70년 전 인선의 가족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강의 전작들에서처럼 이 소설의 핵심적 감각도 주인공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다. 두 사람의 고통은 닮은 듯 다르다. 경하는 4년 전 자신이 쓴 소설과 관련하여 스스로도 규명할 수 없는 정신적 내상에 시달리고 있고, 인선은 물리적 고통 속에서 자신이 고통을 장악하고 있다. 사고로 손가락 두 개가 잘려 나간 인선은 인위적으로 계속 손에 통증을 일으킨다. 잘린 손가락을 그대로 두면 평생 통증에 시달려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통증을 일으켜 신경을 자극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에 고통과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내력의 고통 속에 ‘간헐’ 있지만, 인선의 가족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매개로 두 고통은 연결된다. 경하의 정신적 고통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직접적 고통을 만나 구체화되고, 인선의 물리적 통증은 경하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정신적으로 승화된다.

그런 점에서 한강의 인간관은 홀로바이온트(holobiont)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급진적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는 시선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홀로바이온트’라고 부를 만한 연결된 존재다.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복합적인 유기체를 뜻하는 홀로바이온트는 ‘삶의 과제를 함께 조정하고 공동의 삶을 공유하는 세균, 바이러스, 균류로 구성된 생태학적 단위로 정의된다. 홀로바이온트라는 단위로 바라본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파악되는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다. 한 그루 나무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서로 얽히고설킨 채 있는 나무처럼 한 사람의 존재도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연결 속에 있다.

한강의 소설은 공생 관계로 살아가는 생명체의 존재를 문화적으로, 서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다. 한강이 그려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이미 홀로바이온트적으로 존재해 왔다. 극들은 각자 혼자 고통받았으나 그 고통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통이 아니었으므로 고통의 결과 또한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식물과 식물을 연결해주는 균사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고통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을 한강은 그의 작품을 통해 증명해 낸다. 한강 문학은 인류에게 강한 인간이 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약한 인간,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고통받는 인간이 되는 길이고, 고통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홀로바이온트적인 생명체가 되는 일이며, 도저한 죽음 속에서 스스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